

고려후기 분사대장도감 판각 전적의 규모와 그 내용*

박 용 진**

1. 머리말
2. 분사대장도감의 판각 전적
3. 최이 및 정안 발원 판각 전적과 분사대장도감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대장경은 11세기 초조대장경(이하, 초조장)과 13세기 재조대장경(이하, 재조장)으로 구분된다. 재조장은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장판 초조장이 피분되자 고종 24년에서 35년(1237-1248)에 걸쳐 대장 및 분사대장도감(이하, 분사도감)을 통하여 조성하였다. 이러한 고려대장경의 조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¹⁾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재조장의 조성을 담당한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의 판각 규모와 내용 역시

* 본고는 2021년 11월 19일 경상남도 南海 高麗大藏經板刻聖地保存會가 주최한 2021年 大藏經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高麗後期 分司大藏都監 板刻 典籍의 內容과 特徵』의 일부이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교시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감사드린다.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1) 기존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남권희, 2018 『서지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대장경 연구사』 『大學院研究論集』,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최영호, 2013 『海印寺 所藏 高麗大藏經板의 研究 現況과 課題』 『大藏經 世界文化祝典 資料集』.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였다. 특히, 분사도감에서는 고려대장경 이외에 다수의 전적을 간행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전적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천혜봉은 최이가 설립한 대장도감과 정안의 남해분사도감으로 이원화하고, 분사도감의 판각은 1243년부터 1248년까지 판각한 대장경, 정안이 분사도감을 경영할 때의 판각인 보유판, 정안의 誓願 목적 판각 경전, 정안의 불심에 의한 판각 경전, 분사도감의 시설을 이용한 여업성 판각으로 구분하였다. 균여 찬술 4종인 『십구장원통기』, 『지귀장원통초』, 『교분기원통초』, 『삼보장원통기』의 이른바 보유판은 강화경의 분사도감 판각시설을 이용한 판각으로 구분하였다.²⁾

박상국은 대장경과 보유판 전적의 판각에 대해, 분사도감에서 조조한 보유판과 기타 전적은 국가적 사업인 대장경 판각과는 별개이며, 사적인 차원에서 분사도감의 판각 기능과 인력을 통해 간행한 것으로 보았다.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의 간행은 대장경 이외 『종경록』, 『조당집』, 『수현기』, 『탐현기』 등 4종만을 국간으로 보며, 기타 간행서는 모두 도감의 판각기능을 활용한 私刊 혹은 寺刊板으로 분류하였다.³⁾ 이는 간행 주체면에서의 분류라 할 수 있지만, 이른바 보유판의 4종은 『대장목록』에 없고, 대장경에 입장되지 않았으며, 기타 『종문척영집』 등 분사도감 유간기 불서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간행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 김상영은 대장경 보완을 위해 화엄종과 선종계에서 불서를 간행하였고, 특히 보유판의 선서 4종을 비롯한 7종의 선서는 선종계의 의도로 정안과 일연에 의해 남해분사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보았다.⁴⁾ 최근 최승이는 보유판 선적 9종에 대해 선종계가 선적 수요에 응해 남해분사도감의 판각 기관을 활용한 것으로 보았다.⁵⁾

한편, 1990년대 이후 경판을 새긴 각성인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에 의거, 보유판

2) 천혜봉, 2012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범우, 184-198면.

3) 박상국, 1983 『海印寺 大藏經板에 대한 再考察』 『한국학보』 4, 193면.

4) 김상영, 1993 『一然과 再雕大藏經 補版』 『論文集』 2, 중앙승가대학, 317면.

5) 최승이, 2021 『13세기 분사대장도감의 선적 간행과 그 의미』 『한국사상사학』 67.

의 일부가 13세기 판각임을 밝혀 간행시기 등 많은 오류를 수정하였고, 조성체계, 판각인, 판각공간, 판각 자원 등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김윤곤은 대장경과 보유판에 대해 내장과 부장으로 구분하고, 부장이자 외장 역시 ‘도감판’으로 대장경 조성시기에 경전의 내용과 선교의 종파 등에 의한 일정한 원칙과 범위가 설정된 결과로 보았다.⁶⁾ 한기문은 보유판의 균여가 찬술한 4종에 대해, 종파의 현실적 요구와 사상적 변화에 따라, 강화분사도감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한 것이며, 정판인 대장경과 대등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⁷⁾ 이는 보유판 역시 국가적 사업으로, 분사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연구성과 위에 13세기 간행의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해인사장판, 기타 불서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최영호와 최연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⁸⁾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 위에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전적 및 그와 관련된 전적 가운데 현존 자료에 한정하여 그 규모와 내용을 검토코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분사도감의 판각 전적 현황과 그 내용을 검토한다. 분사도감의 간기가 있는 전적 현황, 분사도감 판각으로 추정되는 전적의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대장 및 분사도감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최이와 정안이 간행한 불서를 통하여 분사도감 판각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대장경 조성 기구인 분사도감의 운영과 추이를 이해하고, 향후 고려대장경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김윤곤, 1998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內·外藏의 특징』 『民族文化論叢』 18·19합집; 2001 『高麗大藏經 彫形成名錄集』, 영남대학교출판부.

7) 한기문, 1997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소재 均如의 著述과 思想』 『한국중세사연구』 4.

8) 최연주, 2006 『고려대장경 연구』, 경인문화사; 崔永好, 2008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등을 비롯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가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인 성과나 쟁점은 본문에서 제시키로 한다.

2. 분사대장도감의 판각 전적

1) 분사도감의 판각 전적과 내용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은 대장경의 간행이 중심이지만, 1243년 분사도감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대장경 이외 불서와 문인의 시문집이 간행되었다. 우선 대장 및 분사도감의 조직을 통하여 판각된 대장경 가운데 분사도감의 경전 종수와 판각량을 살펴보면, 1243년(고종 30)을 기점으로 분사도감을 설치하면서 대장경의 판각량은 대폭 증대되었다. 1242년의 판각은 8,964장, 분사도감 설치된 1243년 이후 31,837장으로 그 증가량은 4배에 이른다. 판각자는 약 1,218명이며, 이 가운데 분사도감이 559명이다. 다음해인 1244년의 판각 수량은 1243년에 비해 24% 증가한 39,613장이다. 1245년과 1246년 판각량을 살펴보면, 16,603장과 10,636장으로 감소되었고, 대장경의 판각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1247년과 1248년은 분사도감의 판각 수량이 많다.⁹⁾ 이와 관련하여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경전 및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사도감의 간기는 대부분 매목되어 있어 이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대장경 분사도감 간기 경전 및 간기 埋木 상항¹⁰⁾

癸卯歲 (1243) 37종	235(下), 237-241, 243(單) , 245(單), 246(單), 248(單)-250(單), 251(單), 252-257(單), 584(1-10), 587(11,13,14), 588(上), 589(上下), 648(1-12,14-20), 799(2,3), 800(上), 801(1-10,21-24,27-30,62-70), 803(1,2,4-7), 804(上下), 805(1), 1047(1-5), 1048(上), 1050(1-4,7,8,11,14-26,28-31,35,37-40,42,46,47,50), 1052(2-4,6,8,10-16,18-20),1053(1,3-10), 1075(1-4,7-11,13-23,25,26,28-30), 1081(1-11,13-28,30)
甲辰歲 (1244) 32종	889(11-13,16,18-20), 941(1-9), 951(1,2,4,5,9-19,21-32,34,35,37-43,45-60), 960(1,2,4,8-10, 11), 961, 962, 963(1-7), 968(1,2,5,6-12), 1053(11-15), 1054(1-7), 1055(1-15), 1056(1-5), 1065(1,3-12), 1066(甲,乙,丙,丁), 1067(單) , 1081(29), 1260(1,2,6-11), 1261(1,3-5), 1406(86卷), 1423(3,7), 1428(上中下), 1429(上下), 1430(下), 1433, 1437(1,3,4), 1438-1442(1), 1452(上) , 1465(3) 鷄鴨 『대승대교왕경』 (1,3-6,8-10)
乙巳歲 (1245) 4종	79(49) , 966(4) , 1049(單), 1263(15)

9) 판각량 자료는 최연주, 2006 『高麗大藏經 研究』, 경인문화사, 143면의 강화경판 판각량과 각성인 참조.

丙午歲 (1246) 2종	<u>79(51), 1263(1,8,11,13,14,16-19,22-25,27,30-32,34,37-39)</u>
丁未歲 (1247)	<u>1449(1-4)</u>
※ 1. 번호는 동국대학교 영인 고려대장경에서 붙인 일련 번호임. 2. () 내는 경전의 권차. 不分卷인 경우 '單'이라 표시. 3. 밑줄 표시가 있는 경전은 매목이 없는 경전임.	

분사도감의 간기가 있는 대장경의 경전은 74종이며, 1243년에서 1247년의 간기가 있는 판각분에 해당한다. 한편, 인출본과 경판의 간기를 비교하면, 경판의 권말에 새겨진 「□□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가운데 '大藏都監'을 파내고, 그곳에 '分司大藏都監'을 새겨 매목하였다. 매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1243년 1종, 1244년의 4종, 1245년의 3종, 1246년 2종, 1247년 1종이다. 1243년 간기가 있는 『大方廣師子吼經』에 간기의 補寫가 보이는데, 이를 포함하면 1243년 간기가 있는 분사도감의 경판은 모두 간기를 개각한 것이 된다.¹¹⁾ 즉, 분사도감의 간기가 있는 74종에서 11건의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경판에 매목 및 補寫를 통해 개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대장도감의 간행을 분사도감의 간행으로 바꾼 것으로, 분사도감의 판각 활동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고려대장경 입장 경전 이외 분사도감의 간기가 있는 자료에 대해 최근의 신출 자료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기로 한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최연주, 위의 책, 187면 <표 3-10> 분사대장도감 조성 경전의 표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고려대장경 입장 경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른바 보유판은 제외하였다. 간기 매목에 대해서는 유부현, 2012 『고려대장경 경판의 분사대장도감 간기에 대한 연구』 『서지학 연구』 51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11) 유부현, 위의 논문.

〈표 2〉 분사도감 판각 전적

연번	서명	撰/譯	권수	연도	간기 및 발문	비고
1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不空	10	1244-1 245	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권7)	비입장
2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智儼	5	1245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권3, 大藏)	
3	華嚴經探玄記	法藏	10	1245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	
4	天台三大部補注	從義	6	1245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	
5	註釋迦如來成道記	道成	1	1253	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	
6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寒山	1	1254	甲寅歲分司大藏都監雕造	
7	祖堂集	靜筠	20	1245	乙巳歲分司大藏都監雕造	
8	宗鏡錄	延壽	100	1246-1 248	丙午歲分司大藏都監開板 丁未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戊申歲分司大藏都監開板	
9	禪宗唯心訣	延壽	1	1251	辛亥歲分司大藏都監雕造	
10	註心賦	延壽	4	1254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雕	
11	重添足本禪苑清規	宗頤	10	1254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雕	
12	宗門捭英集	性簡	3	1254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刻 (甲寅年分司大藏重彫)	
13	唐賢詩範	唐賢	1	1246	丙午歲[開寧分司大藏都監]開板	
14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54	1251	辛亥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15	禪門拈頌集	慧謨	30	1243	禪師萬宗…乘夙願力輸賄于海藏分司, 募工彫鏤, 以壽其傳	만중/ 정안
16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瑞龍	3	1248	任大藏分司…因囑幹事比丘天旦…繼 校募工 筆而書之 簡善手而鐫之	최이
17	鄉藥救急方	미상	3	13세기	大藏都監(昔大藏都監 刊行是書)	추정
18	一乘法界圖圓通記	均如	2	1287	大藏都監開板	추정

〈연번 1〉의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이하, 『대승대교왕경』)은 2종이 간행되었다. 대장도감(권2, 권7)과 분사도감의 간기가 함께 있는 천자문 함차 '雞'函의 『대승대교왕경』과 대장도감의 간기가 있는 함차 '溪'함의 K1272 『대승대교왕경』이며, 본문의 내용에는 많은 문자이동이 확인된다.¹²⁾ 현재

이 2종의 경판은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간행사항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대승대교왕경』의 간행사항

구분	입장판(대장도감)	비입장판(분사 및 대장도감)
간행시기 및 권차	乙巳歲(권2, 3) 丙午歲(권1, 4-6, 8-10) 丁未歲(권7)	甲辰歲分司(권1, 3-6, 8-10) 甲辰歲大藏(권2) 乙巳歲大藏(권7)

『대승대교왕경』은 10권이며, 분사도감 판각의 비입장판의 경판수는 121매이다. 비입장판은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갑진세(1244)부터 을사세(1245)에 걸쳐 판각하였고, 입장판은 대장도감에서 을사세(1245)에 판각을 시작하여 1247년에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뒤에 판각한 대장도감판이 입장되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분명치 않은데, 분사도감판은 개보장 원본 또는 수정본을 저본으로 하여 수정 복각한 ‘초조장 원본’ 또는 보각 수정한 ‘초조장 수정본’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된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¹³⁾ 한편, 비입장판 『대승대교왕경』의 권2는 甲辰歲에 대장도감에서 판각되었는데, 권2의 일부를 새긴 각수 昌茂는 권2의 2장, 분사도감 간기가 있는 권1, 6, 8, 9의 1장씩을 판각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대장 및 분사도감으로 간기는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조성처는 분사도감의 동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추정된다.¹⁴⁾

다음은 화엄종의 교전인 『수현기』와 『탐현기』가 분사도감에서 간행되었다. 〈연번 2〉 『수현기』는 전체 5권이며, 권1과 권5의 권말에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 권2에 ‘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 권3에 ‘乙巳歲大藏都監開板’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대장 및 분사도감의 동일한 조성처에서 판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번

12) 유부현, 2020 『『大乘大教王經』의 고려대장경 중보판 연구』 『〈남해 팔만대장경의 새로운 모색〉 자료집』,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 3-20면; 김윤곤, 1996 『고려대장경의 동아대본과 조성주체에 대한 고찰』 『석당논총』 24.

13) 유부현, 2020 위의 논문, 3-20면.

14) 위의 논문, 3-20면에서 비입장판은 모두 분사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보며, 권2와 권7의 간기가 대장도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처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3) 『탐현기』는 전체 20권이며, 권1, 권12, 권14, 권15는 간기가 없다. 권2, 권4, 권7, 권8, 권9, 권13, 권16, 권17, 권18, 권19, 권20의 권말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 권3, 권5, 권6, 권10, 권11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의 간기가 확인된다. 『탐현기』는 해인사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고, 1245년에 분사도감의 간행으로 볼 수 있다.

〈연번 4〉 『天台三大部補注』는 천태종의 주요 교전이며, 1245년에 분사도감에서 개판되었다. 본서의 간기는 권3, 4, 5에 기록되어 있고, 권3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 권4와 권5에는 ‘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가 새겨져 있다. 본서의 판식은 35행 19-20자로 권자본이나 절첩본 형태이며, 천태종 백련사의 불서 간행과 관련이 있다.¹⁵⁾

〈연번 5〉의 『註釋迦如來成道記』(이하, 『성도기주』)는 신출 자료이다. 『성도기주』는 당대 王勃의 『釋迦如來成道記』를 송나라 道誠이 주석한 것이다. 본서는 불분권 1책이며, 권말에 기록된 간기는 ‘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이며, 1253년 분사도감에서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성도기주』는 송나라에서 1034년경 간행되었지만, 고려의 수용 시기는 분명치 않다. 1253년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성도기주』가 국내외 최고본이며, 고려시대 이후 유통은 찾아지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 유통·간행되었다.¹⁷⁾ 〈연번 6〉의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이하, 『천태한산습득시집』)은 당대 寒山, 翫得, 豐干의 시문을 집성한 것이다. 『천태한산습득시집』의 간기는 ‘甲寅歲分司大藏都監雕造’이며, 1254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사도감판본이 고려 이후 유통본의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다음은 선종의 전적이다. 〈연번 8〉의 『祖堂集』은 南唐의 保大 10년(952)경에 편찬되었다. 『조당집』은 중국에서 오대의 전란으로 산일되었고, 고려 전래본을 1245년에 분사도감에서 조조하였으며, 목판은 해인사에 전존한다.¹⁹⁾ 본서는 전

15) 남권희, 2021a 『天台三大部補註』와 『釋迦如來行蹟頌』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백련사 전래 전적에 대한 서지 및 사상적 연구』 발표자료집, 백련사, 6-7면.

16) 남권희, 2021b 『분사대장도감 간행 『주석가여래성도기』』, 『불교고전문헌 연구의 동향』 발표자료집, 불교학연구회, 산기문고 소장본으로 신출 자료이다.

17) 박용진, 2021a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 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석당논총』 80, 197-198면.

18) 박용진, 2021b 『朝鮮時代 光陽 白雲山 일원 사찰의 불서 간행과 그 의의』 『남도문화연구』 43.

체 20권이며, 간기는 권1의 말미에만 ‘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가 확인된다. 판각 시기는 1245년으로 다른 권도 같은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연번 9>의 『宗鏡錄』은 북송 연수의 편찬이며, 전체 100권이다. 본서의 간기는 ‘丙午歲分司大藏都監開板’(권1 등), ‘丁未歲分司大藏都監開板’(권6 등), ‘丁未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권16등),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권27), ‘戊申歲分司大藏都監開板’(권51 등)이 확인되며, 1246년부터 1248년에 걸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간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것은 ‘丁未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라고 하여, 분사도감판에서 ‘봉칙조조’를 표기한 것, 권27에서는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이라 하여 ‘分司南海’의 간행처가 나타나고 있어, 분사도감이 남해에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본서는 『승령장』이나 『비로장』 가운데 후에 보관된 것을 저본으로 복각하면서 천자문 함차를 인습하여 복각한 것이다.²¹⁾ 따라서 본서가 정장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는²²⁾ 의문이며, 본고에서는 별개로 판단한다.

<연번 9>의 『禪宗唯心訣』은 연수의 편찬이다. 본서의 간기는 ‘辛亥歲分司大藏都監雕造’로 『종경록』에 이어 1251년에 조성되었다. <연번 10>의 『註心賦』 역시 연수의 편찬이다. 본서는 4권이며,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注心賦卷第三, 注心賦卷第四, 心賦釋音’이 수록된 2권 1책의 영본이다. 권말의 간기에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雕’라 하여, 1254년에 분사도감에서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연번 11>의 『重添足本禪苑清規』은 북송 長蘆宗頤의 편찬이다. 본서의 저본은 권제10의 권말에 ‘聖宋政和元年上元日重添’이라 하여, 정화 원년(1111)의 판본에 의한 것이고, 본서는 남송 寶祐 2년(1254) 간행본을 저본으로,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雕’라 하여 1254년에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⁴⁾ 본서의 권말에 저본간

19) 박용진, 2021a 앞의 논문, 205-206면.

20) 한기문, 1999 『『祖堂集』 신라, 고려 고승의 행적』 『한국중세사연구』 6, 207-208면.

21) 유부현, 2005 『분사대장도감판 『종경록』의 底本考』 『서지학연구』 30.

22) 박상국, 1983 『海印寺 大藏經版에 대한 재고찰』 『한국학보』 33, 206면.

23)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이며, 注心賦卷第三, 注心賦卷第四, 心賦釋音이 수록된 영본 1책이다(<https://library.korea.ac.kr/> 검색일: 2021.10.1.).

24) 최법혜 편, 1987 『고려관중첩족본선원청규』, 민족사의 영인본이 있다. 본서는 동경 泉岳

기인 ‘聖宋政和元年上元日 重添’이라 하여 초간본을 보충하였고 이어 이를 저본으로 중간한 판본을 대상으로 고려에서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연번 12〉의 『宗門撫英集』은 북송 惟簡의 편찬이다. 본서는 상중하 3권 1책이며, 권상의 권말에는 ‘婺州普泰院僧無染募緣 郡衆信 於杭州開印’, 권중의 말미에 ‘甲寅年分司大藏重彫’, 권하의 말미에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刻’이라 하여, 송 항주 개관본을 저본으로 1254년에 분사도감에서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소재는 미상이며, 『高麗佛籍集佚』에 전문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²⁶⁾

다음은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외서 시문집이다. 〈연번 13〉의 『唐賢詩範』은 해인사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고, 권하 제11장의 권말에 ‘丙午歲[開寧分司大藏都監]開板’이라는 간기가 보이는데, 개령 지역이 분사도감의 조성처였던 근거가 된다. 본관의 판면에 새겨진 각수는 정장正藏, 손작孫綽, 혜견惠堅 등이 고종 30년에서 32년 사이에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²⁷⁾ 〈연번 14〉 『東國李相國集』은 54권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문에 의하면 『東國李相國全集』 41권, 『後集』 12권, 『연보』 1축이라고 하였다. 본서의 간기는 『동국이상국전집』 제41권의 권말에 ‘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가 기록되어 있어, 1251년(고종 38) 분사도감에서 봉칙 조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⁸⁾

다음은 대장 및 분사도감의 간기는 없지만, 발문이나 권말지어에 의거, 분사도감의 간행으로 볼 수 있는 『선문염송집』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이 있다. 〈연번 15〉의 『禪門拈頌集』은 고려 혜심의 편찬으로, 1233년(고종 20)에 혜심과 그의 문도에 의해 간행되었지만, 분실되어 중간된 것이다. 본서는 전체 30권으로 이루어졌고, 간기는 없으며, 권제30의 권말에 수록된 정안의 발문인 “禪師萬宗

寺에 소장되어 있다.

25) 남권희, 2021b 앞의 논문, 불교학연구회 자료집, 5-6면.

26) 東國大學校出版部 편, 1985 『(曉城先生八十頌壽)高麗佛籍集佚』, 東國大學校出版部.

27) 최영호, 2014 『해인사에 소장된 『당현시범』의 역사 문화적 성격』, 『석당논총』 60.

28) 『東國李相國集』, 『李相國集跋尾』(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검색일 2021.10.1.), “嗣孫益培言 祖文順公全集四十一卷 後集十二卷 年譜一軸 行于世者尙矣 多有訛舛 脫漏之處 今者 分司都監 雕海藏告畢之暇 奉勅鏤板 予幸守比郡 以家藏一本 讎校流通耳 校勘河東郡監務管句學事將仕郎良醞令李益培 錄事 將仕郎軍器注簿同正張世候 錄事 將仕郎軍器注簿同正并洪湜 副使 晉州牧副使兵馬幹轄試尙書工部侍郎全光宰 使.”

般若中來 乘夙願力 輸賄于海藏分司 募工彫鏤 以壽其傳 (중략) 癸卯中秋逸庵居士 鄭晏跋.”에 의거, 선사 만종이 해장분사 즉 분사도감에 비용을 보내어 간행한 것이다.²⁹⁾

『선문염송집』은 전체 30권으로 목판에서 확인되는 각성인은 권1의 惠耳, 元卿, 卽玄, 公彌를 포함하여 최소 79명을 상회한다. 『선문염송집』 권1은 장수 33장에 4명의 각수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惠耳는 『선문염송집』 권1의 11장을 판각하였으며, 대장도감에서는 1237년에 『방광반야바라밀경』 권17의 제27장을 판각하였고, 1243년에는 『속고승전』 권3의 제3장을 판각하였다. 惠耳는 1237년부터 1244년까지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에서 『방광반야바라밀경』 등 21종의 경전을 판각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선문염송집』의 간행은 만종의 판각 경비 부담 등 정안이 발문을 쓴 1243년(고종 30) 이후 준비를 거쳐, 1244-1248년(고종 31-35) 분사도감의 조직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연번 16〉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이하, 『남명송증도가사실』)은 고려 서룡선노 연공이 편찬한 것으로, 3권 1책이다. 본서는 분사도감이나 대장도감의 간기는 없지만, 권말지어를 통하여 분사도감의 간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명송증도가사실』 권3의 말미에 기록된 전광재의 지어에는 “歲戊申按行下韓道 兼任大藏分司 私心喜幸 然草本訛略 未卽下刀 因囑幹事 比丘天旦 俾禪伯 舉上人讎校 募工筆而書之 簡善手而鐫之”라 하여, 전광재가 무신년 즉 1248년(고종 35) 9월 변한도 안찰부사와 대장분사를 겸임하면서, 비구 천단에게 간행을 주관케 하였고, 선종의 거상인에게 수교를 의뢰한 뒤, 등재본을 마련하여 판각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는 “所冀 我晉陽公壽增嶽峙 福畜淵深 塞消狼大 天掃攬槍 時和歲稔 使祖燈永耀 於無窮耳 九月上旬 慶尙晉安東道 按察副使 都官郎中 全光宰誌³¹⁾”라 하여, 당시 최고 집정자인 진양공 최이를 축원하였다. 전광재는 최이에 의해 발탁되어 慶尙晉安東道 按察副使 都官郎中の 직책을 띠고, 분사도감

29) 최연주, 2018 『高麗大藏經 조성과 鄭晏의 역할』 『석당논총』 70, 112면에서 만종이 간행시 분사도감의 체계를 활용하였고, 분사도감이나 산하 공방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0) 박용진, 2021a 앞의 논문, 204-205면.

31)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卷3(K1500 『고려대장경』 45, p.59 a18-b12).

의 대장경 조조를 관장하였는데, 이때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동원하여 본서를 간행하였을 것이다.

한편, 『남명송증도가사실』에는 다수의 각성인이 확인되며, 孝純, 洪才, 洪○, 天正, 全一, 自奇, 宝龍, 宝奇, 大意, 金良, 歸玄 등 11명이다. 이들의 다수는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경관을 관각한 각성인으로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한 분사도감을 주관한 전광재의 지어와 위의 각성인의 활동을 종합하면, 『남명송증도가사실』은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기반으로 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약구급방』은 상중하 3권 1책으로 편자는 미상이지만 정안의 편찬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는 永樂 15년(1417)에 경상도 義興郡候 崔自河가 私藏의 고려 대장도감본을 감사 이지강에게 청하여 義興縣에서 중간한 것이다.³²⁾ 尹祥의 발문에 기록된 ‘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에 의거, 대장도감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³⁾ 본서가 정안의 편찬과 관련되었다면, 그 간행은 『동국이상국집』의 사례와 같이 남해분사 혹은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한 간행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뒤 1287년에 대장도감에서 중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승법계도원통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분사도감 판각 추정 전적

분사도감의 간기는 없지만,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의 운영을 통한 판각으로 추정되는 전적이 다수 찾아진다. 이와 관련된 전적에 대해 분사도감과의 관련성을 검토키로 한다. 분사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金斗鍾, 1963 『鄉藥救急方』 『圖書』 5, 을유문화사, 2-68면에 『鄉藥救急方』의 원문 영인 수록.

33) 한편, 남해분사대장도감 1243-1245년 정안 편간설은 이태진, 1988 『고려후기의 인구증가 요인 생성과 鄉藥醫術 발달』 『한국사론』 19, 263·272-273면에서 三木榮의 『醫學史』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다. 비슷한 견해로는 1247-1251년 남해분사대장도감에서 정안의 편찬 간행 혹은 정안 사후 간행설이 있다[홍영의, 1997 『고려후기 대장도감간 『향약구급방』의 간행경위와 자료성격』 『韓國史學史研究』(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회 편), 나남출판, 174-179면].

〈표 4〉 분사도감 판각 추정 무간기 전적³⁴⁾

연번	서명	찬자	시기	분사도감 판각 추정	비고
1	十句章圓通記	均如	1250	각수, 지어	해인사장판
2	釋華嚴旨歸章圓通鈔	均如	1251	각수, 지어	해인사장판
3	華嚴經三寶章圓通記	均如	1251?	각수, 지어	해인사장판
4	釋華嚴教分記圓通鈔	均如	1251	각수, 권6말 간기	해인사장판
5	法界圖記叢隨錄	未詳	13세기	각수 光父 등	해인사장판
6	一乘法界圖圓通記	均如	1287	大藏都監開板	重刊 추정
7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法泉	1239	각수 東伯, 公大, 吳準 등	분사 이전
8	禪門三家拈頌集	天英後序	1246序	각수 正安, 孫昌, 有立	
9	法華文句併記節要	了世	13세기	각수 仁基, 成呂 등	
10	圓覺類解	行霆	13세기	각수 存植, 有立	
11	弘贊法華傳	惠詳	13세기	각수 存植, 正安	
12	金光明經	曇無讖	1244추	각수, 文과 呂溫	해인사장판
13	合部金光明經	曇無讖	13세기	각수 存植, 正安, 孝兼	
14	金剛三昧經論	元曉	1244년	각수, 정분 지어	해인사장판
15	慈悲道場懺法	諸法師	13세기	각수	해인사장판
16	大藏一覽集	陳實	13세기	각수	해인사장판
17	大藏一覽集	陳實	13세기	각수 存植, 正安	계명대 소장
18	南陽先生詩集	白賁華	1249序	각수, 隴西李涵澤之序	해인사장판

위의 〈표 4〉 분사도감 판각 추정 무간기 전적은 모두 18종으로 추정된다. 이를 주제 및 내용으로 구분하면 화엄 교전, 선종서, 천태교전, 유가교전, 기타로 나뉜다. 소장처로 구분하면, 해인사 소장 경판이 다수인데, 보유판이 8종, 『금광명경』 경판의 1종이 추가된다.

〈연번 1-6〉 화엄 교전을 살펴보면, 1250년 이후 1251년까지 조성되었고, 대부분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활동한 각수들이 판각하였다. 『십구장원통기』는 상하

34) 일부 각수는 대장도감 판각 활동만 확인되는 사례도 있어 분사도감 활동 관련은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판각 규모를 살펴보기 위한 시론임을 밝혀 둔다.

2권 1책이며, 하권 말미에는 지어가 기록되어 있고, ‘高麗國江華京十九年庚戌(1250)月日 弟子等誌’라 하여, 1250년을 전후하여 천기의 제자들이 주관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십구장원통기』는 5명의 각수명이 확인되고, 박경, 혜건, 득림, 광예, 공진 등이 도감의 대장경 판각 활동을 마친 이후 『십구장원통기』를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귀장원통초』는 상하 2권이며, 권하 말미에는 ‘本講和尚典王寺教學僧絃天其 … 辛亥(1251)五月 日 弟子誌’라 하여 지어가 있고, 1251년을 전후하여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귀장원통초』의 판각에는 6명의 각수가 확인되며, 대장도감에서만 판각에 종사한 각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판각 활동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판각활동 시기는 1237년부터 1248년까지였고, 본서의 간행 시기는 1251년임을 미루어, 도감에 종사한 각수들의 대장경 판각 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판각에 해당한다.

『華嚴經三寶章圓通記』는 상하 2권이며, 권하의 말미에는 간략한 지어가 수록되어 있다. 지어에는 구체적인 간행 시기나 장소를 알 수 없지만, ‘本講和尚天其生於相去數百余載之后生 如宿植一依義相門下 所專妙旨 聖師遺記 當此季末五濁之深揭 獨力園宗古義 然後海東學人 知有華嚴義持一路矣 弟子事本講 預聞一二大義 今依如公三寶章古記 刊削羅言 離爲二卷 以施學人 非敢好事 欲成就先和尚之本願耳³⁵⁾’라 하여, 天其의 제자가 간행을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기와 각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先和尚’이라는 문구로 보아 천기의 입적 해인 1248년 이후 간행이며, 『십구장원통기』와 판식의 일치 등으로 미루어 1250-51년으로 추정된다. 간행처는 여타 화엄 장소와 같이 분사도감의 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술한다.

『釋華嚴教分記圓通鈔』는 전체 10권이며, 권6 말미에 ‘江華京辛亥(1251)十一月’이라는 지어가 있어, 1251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화엄교분기원통초』의 각수는 孝之, 惠己, 子龍, 性一, 又玄, 道宣, 李義 등 12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1238년부터 1248년까지 활동하였다. 이들이 『교분기원통초』를 1251년에 판각하였다면, 도감에서의 판각 활동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을 집중하여 동원하였다면, 지

35) 『華嚴經三寶章圓通記』 2권(『고려대장경』 47, p.160 b28-b33).

역적 기반을 갖춘 분사도감의 조직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계도기총수록』은 상하 2권이며, 간행자, 간행시기, 간행처 등은 모두 미상이다. 본서는 해인사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고, 이른바 보유목록판에 해당하며, 각성인을 통하여 분사도감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표 5〉 『법계도기총수록』의 각성인과 판각활동

권차	장수	각성인	각량	장차	판각활동	대장도감 판각	분사도감 판각
상1	49	士代	1	31	43-44	佛說放鉢經(43/단-3)	正法念處經(43/4-21)
상1	49	昌茂	1	40	44	大教王經(44/2-4)	金光明經(44/3-24)
상1	49	升有	1	45	43-47	增壹阿含經(43/4-15)	諸經要集(43/4-41)
상2	42	光又	1	12	43-45년	佛本行集經(43/8-19)	續高僧傳(43/18-4)
상2	42	公侯	3	20,22,23	미상	미상	미상
하1	44	道宣	2	17-20	38-46	正法念處經(43/56-11)	本事經(43/4-13)
하1	44	仁又	1	32	43-44	佛本行集經(43/10-1)	분사도감 없음

위와 같이 『법계도기총수록』의 각성인은 7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1238년부터 1247년까지 도감의 판각에 참여하였다.³⁶⁾ 위의 각성인 가운데 光又는 1250년에 『십구장원통기』, 道宣은 1251년에 『교분기원통초』를 판각한 사례로 미루어, 다른 화엄 장소와 같이 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하여 1250-1251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일승법계도원통기』는 상하 2권 1책본이다. 천기는 3권으로 하였지만, 간행 과정에서 상하 2권으로 하였을 것이다. 본서의 권말 지어의 내용을 통하여 간행시기나 장소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본서는 발문에 의거 1287년

36) 최영호, 2008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61-65면에서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각수를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본서는 각수들이 도감에서 활동한 시기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하여, 1237-45년과 1247년경에 대장이나 분사도감에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한기문, 1997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소재 균여의 저술과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4, 120면에서 각수 분석에 의거, 『법계도기총수록』은 균여 저술이 판각된 125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110-111면에서 균여 저술 4종은 강화경의 분사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렵 대장도감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 시기에 대장도감은 존속되었지만, 그 활동은 분명치 않다. 다만, 승통 천기의 입적이 1248년이라면, 1287년에 천기가 '今坐 講閣梨 興王寺教學 海印寺住持'일 수 없다. 따라서 1248년 이전의 개관이 되고, 1287년에 중간의 가능성도 있다.³⁸⁾ 이와 관련하여 해인사 주지 천기가 『일승법계도원통기』를 詳定한 곳은 해인사로 추정되는데, 1234년에 개태사 주지를 거쳐 1248년 이전에 해인사 주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대장 및 분사도감의 각성처인 해인사에서 『수현기』나 『담현기』의 개관과 함께 화엄 교전의 조성을 의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귀장원통초』는 천기의 제자들이 1248년에 경주 동천사에 제덕을 초청하여 방언을 산삭한 것을 1251년에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분사도감에 편제된 조성처인 해인사나 동경 동천사에서 판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³⁹⁾ 다만, 『일승법계도원통기』는 1248년 이전에 분사도감에서 개관하였고, 1287년의 중간은 대장도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연번 7-8>의 선증서에 대해서 검토한다.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이하, 『남명송증도가』)는 송대 千頃 法泉의 찬술로 불분권 1책이다. 진양공 최이의 책 말 지어에 의거, 고종 26년(1239)에 최이가 주자본을 저본으로 중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⁰⁾ 『남명송증도가』의 각수로는 관심 하단에 得#仁, 東伯, 叔敦#, 玠才, 唐甫, 公大, 吳準, 一明, 公#卍, 元#暉, 恩儒 등 11명이 확인되며, 이들은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판각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 가운데 公大, 一明은 1240년 간행의 계환의 『묘법연화경해』를 판각하였고, 叔敦은 『禪門雪竇天童園悟三家拈頌集』

37) 『一乘法界圖圓通記』, “今坐講閣梨興王寺教學 海印寺住持僧統天其與業內諸德 詳定此記 分爲三卷 奉承上制 彫板廣布 奉福無窮者 至元二十四年 丁亥(1287)正月日 前捻郎 金啞用 晦跋 金城寺住持三重大師 永曇書 大藏都監開板.”

38) 최연식, 1999 『균여 화엄사상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67-70면. 균여 저서의 편년과 인용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39) 최영호, 2008 앞의 책, 경인문화사, 107면에서 선행연구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분사도감이 지방 통치조직인 계수관 체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었고, 도감의 공방이 기왕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남해지역 이외, 동경, 진주목, 해인사, 동경의 동천사, 산청군 단속사, 가야산 하거사 등도 분사도감의 조성처로 보았다.

40) 『南明泉和尚頌證道歌』, “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 而入升堂 觀奧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中 書令晉陽公崔怡謹誌.”

(이하, 『선문삼가염송집』)을 판각하였다.⁴¹⁾ 최이의 간행인 점과 도감에서 활동한 각수를 활용한 것으로 미루어, 1243년 분사도감으로 전개된 대장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문삼가염송집』은 불분권 1책으로, 龜庵이 『선문염송』 30권 가운데 3가를 뽑아 편찬하였으며, 진양공 최이에게 의뢰하여 간행하였다.⁴²⁾ 천영의 후서에 의거, 1246년 간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서의 각수는 ‘存植 ‘正安’, ‘孫昌’, ‘有立’, 溫淸, 漢立, 成進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대장도감에서 활동한 각수이다. 본서의 간행처는 『선문염송』을 계승한 선서인 점, 진양공 최이에게 간행을 의뢰한 점, 불분권 1책의 적은 분량임에도 다수의 도감 활동 각수들이 참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동원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이상 2종의 선서는 선종 출신인 최이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미루어 분사도감의 조직과 각수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연번 9-11〉의 천태종의 소의 장소인 『法華文句并記節要』, 『원각류해』, 『홍찬법화전』 등의 간행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법화문구병기절요』는 천태종 백련사 요세의 저술로 추정되며, 전체 10권 3책이다.⁴³⁾ 본서는 판심 하부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고, 권3에 宗, 性, 宣, 完, 권4에 文, 得珠今, 卷5에 [成呂]刊, 允卿, 天曉, 惠耳, 目保呂儀, 中國 등이 확인된다. 『圓覺類解』의 현존본은 卷1~3으로 卷4가 없는 零本 3책으로, 전체 4권으로 추정된다. 본서의 판심 하부에는 각수명이 확인되는데, 存植, 植, 古大, 大才, 上者, 金升, 有立, 立, 大有, 大由 등이

41) 최영호, 2021 「고려 고종 26년 판각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표기된 각수의 기능적인 전문영역」 『서지학연구』 85, 37-50면. 인명의 ‘#’ 표시는 이체자임. 한편 49면에서 이들은 대장도감에서 『대만야경』을 판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이의 『증도가』 판각을 위한 공인 모집에 응해 판각한 것으로 보았다.

42) 『禪門三家拈頌集』, 「後序」 “道自有言 遶相師師 千軌軌分鑣 莫之能禦 然其深把道源 啓迪群惑 一字一音 金相玉振者 莫若三家 如雪寶言奧而理量大 天童語精而秋毫分鬮悟 機曠而褒貶足 師是三家則掉鞅於相域也 無疑 龜庵老禪 於國老所 撰拈頌三十卷中 撮出三家 總成一部 囑晉陽公 板壽傳焉 觀夫一佛之宗派而三之者 三家也 三家之派 匯而一之者 老禪也 然一而三之 三而一之 俱未免譎訛 具知方眼 試請辨看 丙午七月 日 道者天英跋。”

43) 남권희, 2020 「만덕산 백련사 관련 문헌의 서지적 검토」 『〈백련사의 전승문화와 사상〉 발표자료집』, 백련사, 75-86면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에 의거 정리하였다.

있는데, 存植과 植, 立과 有立, 大有와 大由, 大는 같은 각수로 추정된다. 『弘贊法華傳』의 현존본은 권6부터 권8까지의 零本 1책으로, 전체 8권으로 추정된다. 관심 아래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고, 正安, 存植이 확인된다. 이상 천태종 소의 장소인 『圓覺類解』, 『弘贊法華傳』, 『法華文句并記節要』의 간행시기와 간행처는 불명이나, 각수명의 확인을 통하여 간행사항을 검토기로 한다.

〈표 6〉 천태종 3서의 각성인과 분사도감 판각 내용

서명	각수	활동시기	대장도감	분사도감
법화문구명기	成呂	37-44	放光般若波羅蜜經37/17-25	中阿含經43/20-2
법화문구명기	仁基	43-48	中阿含經43/28-19	正法念處經43/22-3
원각류해	古大	미상	미상	미상
원각류해	大有	45	佛說大乘日子王所問經45/단-1	분사없음
원각류해	大才	37-44	放光般若波羅蜜經37/15-9	분사없음
원각류해	金升	37-46	大般若波羅蜜多經37/60-8	經律異相43/31-15
원각류해	上者	미상	미상	미상
홍찬법화전	正安	38-42	大般若波羅蜜多經38/511-27	분사없음
홍찬법화전	存植	38-43	大般若波羅蜜多經38/108-1	분사없음

이상 3종의 천태종 장소는 현전본이 모두 영본이므로 각수의 전체적인 규모는 분명치 않다. 『법화문구명기절요』와 『원각류해』를 판각한 각수는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활동하였지만, 『홍찬법화전』의 각수인 정안과 존식은 분사도감에서의 대장경 판각 활동은 조사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들이 보유판 및 기타 불서의 판각에 참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천태종 3서 판각 각수의 보유판 및 기타 불서 판각 참여 비교 (단위: 건)

구분	金剛三昧	證道事實	搜玄記	大藏一覽	法界圖記	教分記	旨歸章	禪門拈頌	十句章	慈悲道場	祖堂集	宗鏡錄	探玄記	證道歌	三家	大藏一覽	合部金光	法華節要	圓覺類解	弘贊傳
法華節要				1				4				2	1					13		
圓覺類解													1		2	1	1		7	1
弘贊傳															2	2	2		1	2

위의 <표 7>의 천태종 3서 판각 각수의 보유판 및 기타 불서 판각 참여 비교를 보면, 『법화문구병기절요』의 각성인은 보유판의 판각에 참여하였지만, 『원각류해』와 『홍찬법화전』의 각성인은 보유판의 판각 참여가 보이지 않고, 기타 불서의 판각에 참여하는 차이가 있다. 『원각류해』와 『홍찬법화전』의 각수 가운데 존식과 정안이 『대장일람집』, 『선문삼가염송집』, 『합부금광명경』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이로 보면, 천태 3서 가운데 『법화문구병기절요』는 간행시기와 간행처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간행처에 대해서는 대장 및 분사도감의 판각 참여자가 다수인 점으로 미루어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이상 천태종 3서의 각수 비교를 통해 보면, 『법화문구병기절요』는 『홍찬법화전』 『원각류해』와는 참여 각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允卿이 『탐현기』의 판각에 참여한 것이 공통적이다. 『원각류해』의 김승 역시 『탐현기』의 판각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상관성은 분명치 않다. 천태 3서와 『대장일람집』, 『선문삼가염송집』, 『합부금광명경』은 같은 시기와 지역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각수의 대부분은 도감에서 활동한 것으로 미루어 도감의 조직과 인원에 의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시기는 1240년대로 추정할 수 있고, 『선문삼가염송집』이 1246년 天英의 발문이 있어, 판각 시기도 후대로 보아야 한다.⁴⁴⁾ 분사도감의 간행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연번 12-13> 유가종의 소의경전에 대해 검토한다. 『금광명경』은 대장경판이 아닌 별판으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간행은 권1의 각수명 ‘文’과 권3의 ‘濫’을 ‘元仁文’과 ‘呂濫’으로 보고, 이들이 대장 및 분사도감에 참여한 것에서 1244년 무렵 판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濫淸은 고려대장경 K1465번 4권 『금광명경』, 온청은 대장도감 『阿育王經』 등 9개 경전을 1241-44년에 걸쳐 판각하였다. 일부는 대장경 각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판각하였고, 일부는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 판각하였다. 이들 각수는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활동한 이들로 그 시기는 1244년이므로 『금광명경』의 판각은 분사도감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⁵⁾

44) 남권희, 1997 『13세기 천태종 관련 고려불경 3종의 서지적 고찰: 圓覺類解, 弘贊法華傳, 法華文句并記節要』 『서지학보』 19.

『합부금광명경』은 고려대장경 입장관 이외 동 시기에 간행된 별판본이다. 본서의 권3에는 각수인 ‘正安’, ‘昌’, ‘孝兼’, ‘存植’, ‘立成’ 등 5명이 확인되며, 이들은 모두 대장경의 각성 사업에 참여하였다.⁴⁶⁾ 正安은 대장도감의 『大方便佛報恩經』 등 여러 경전의 각수로서 뿐만 아니라 13세기 중반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찬법화전』, 『대장일람집』 등의 각수로 확인되므로 『합부금광명경』의 간행 역시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여겨진다.⁴⁷⁾ 다수의 각수가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이 역시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해 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다음은 특정 종파성을 갖지 않는 불서에 대해 검토한다. <연변 14>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찬술로 상중하 3권이며, 권하의 말미에는 고종 31년(1244) 정안의 지어가 있다.⁴⁹⁾ 본서는 정안의 발원에 의해 갑진년, 즉 1244년 무렵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어에 따르면 본서는 진양공 최이와 정안의 모친의 수복을 기원하였다. 조성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의 대장경 조성은 분사도감 체제로 운영되는 시기였다. 또한 대장경 조성은 최이와 정안에 의한 기여 등 전반을 고려하면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동원한 간행으로 추정된다.⁵⁰⁾

<연변 15> 『자비도량참법』은 전체 10권으로 해인사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고, 이른바 고려대장경 보유관에 해당한다. 이 경판의 각수는 克夫, 金鍊, 富令 등

45) 김운곤, 2002 『高麗大藏經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514-565면. 또한, 천혜봉, 2012 『고려대장경과 교장 연구』, 범우, 197면에서 불교계의 수요에 따라 분사도감의 여업으로 간행한 것이라 하였다. 한편, 각수의 분석 없이 11세기 각판으로 추정한 것은 崔凡述, 1970 『海印寺寺刊鏤板目錄』, 『東方學志』 11, 25면; 金斗鍾,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探究堂, 102면 참고.

46) 상세는 남권희, 1998 『고려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3에 관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연구』 15; 최연주, 2005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古文化』 66, 45면.

47) 남권희, 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48) 최연주, 2005 앞의 논문, 45면에서 『합부금광명경』은 국왕권 강화와 호국 목적의 간행으로 보았지만, 간행자에 대해서는 유보하였다. 또한, 『선문삼가염송집』은 천영의 발문에 의거 국가적 사업인 도감판은 아닌 것으로 본다.

49) 『金剛三昧經論』, “伏爲 寶祚無疆 儲闈凝慶 氛塵永寢 朝野昇平 晉陽公福海等 壽嶽齊高 次願孀親泊及佛奴 變呻爲謳 嚮年有永鏤板印施 重念 此經出自虵宮 發起因於疾病 更願普及法界含生 生生不聞疾病之音 不處胞胎 常遊諸佛淨妙國土爾 甲辰八月初五日 優婆塞鄭晏誌.”

50) 조성처에 대해서는 남해분사도감(김운곤, 1993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체제에 관한 일고』, 『부산여대사학』 10·11합집), 분사도감(최영호, 2008 앞의 책, 경인문화사, 58면).

20여 명이며,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에서 판각 활동을 하였다.⁵¹⁾ 『자비도량참법』의 각성인을 분석하면, 이들은 1237년부터 1248년까지 최소 15명이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경판을 조성하였다. 본서의 각수들은 보유관인 『선문염송집』, 『종경록』, 『탐현기』 등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특히, 본서에는 ‘戶長’이 관칭된 ‘戶長金’, ‘戶長裴公綽’, ‘戶長○○’, ‘戶長中尹金練’의 인명이 판면에 새겨진 특징적인 사례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戶長裴公綽은 公綽과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1243년부터 44년까지 본서 이외 39개 경전의 136장을 조성하는데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장경 사업에 각수나 판각 기진자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²⁾ 이를 종합하면, 결국 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이른바 보유관의 판각이 주로 분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에 의한 간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번 16-17〉의 『대장일람집』은 남송 복건성 영덕현의 陳實이 1157년경 편찬한 유서로, 석가모니 생애, 선종 계보와 인물, 기타 교리를 분류 서술한 것으로 목록을 포함하면 전체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목판이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고,⁵³⁾ 계몽대 도서관에도 13세기 대장도감에서 활동한 각수가 판각한 『대장일람집』이 소장되어 있다. 우선 해인사장판 『대장일람집』은 간기가 없고, 서문이나 발문도 확인되지 않지만, 판면에 다수의 각수가 확인되는데, 金升, 性一, 惟正 등 최소 66명이며, 이들은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대장일람집』의 각수가 보유관의 다른 경전 판각에 참여한 것은 『수현기』 9건, 『조당집』 19건, 『종경록』 10건, 『탐현기』 32건이다. 본서는 대장도감에서 활동한 다수의 각수를 통하여 일정한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간행은 분사도감의 판각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협조를 얻어야 가능

51) 최영호, 2008 앞의 책, 162-163면에서 대장 및 분사도감의 대장경 판각사업에 참여한 향리층을 분석하였으며, 61면에서는 본서의 판각처에 대해 도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도감관 내지 준도감관으로 규정하였다.

52) 위의 책, 163-164면. 선행 연구에서는 『자비도량참법』과 화엄 교전 4종의 서체의 동일성, 강화경에서 개판,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활동한 각수와 중복되는 점, 목판의 재질이 도감판과 동일한 점 등을 들어 도감관 내지 준도감관으로 본다.

53) 『大藏一覽集』(『고려대장경』 k1504), “門目總類末: 建安劉五三郎書局刻梓以傳.”

한데, 개인이나 사찰이 대장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 가운데 개별적 판각 요청이나 개입이 가능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대장경의 판각 사례와 같이 다수의 인원을 일시에 동원하여 판각한 것으로 미루어,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한편, 〈연번 17〉 계명대장본 『대장일람집』은 권제1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장일람집』은 전체 11권이므로 나머지 10권이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3권 1책으로 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키 어렵다. 본서의 관심 하단에는 각수 ‘存植’, ‘正安’ 등이 확인되는데,⁵⁵⁾ 이들은 『홍찬법화전』, 『원각류해』, 『합부금광명경』 등의 판각에도 참여하였다.⁵⁶⁾ 본서 역시 해인사장판 『대장일람집』과 함께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한 판각의 가능성이 있다.

〈연번 18〉 『남양선생시집』은 백분화의 문집으로 상하 2권 1책이며, 해인사에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서문은 ‘時己酉三月日 前禮部員外郎隴西李涵澤之序’에 의거, 1249년(고종 36)을 전후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251년에 간행된 『동국이상국집』은 ‘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라 하여 왕명을 받들어 분사도감에서 판각되었는데, 시기로 보아 전후하여 함께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서의 권상 제1장에 ‘惠○’, 제2장에 ‘堅’, 권하의 제9장에 ‘堅’, 상권 제19장과 20장에 ‘孝眞’이 새겨져 있어, 각수 ‘慧堅’과 ‘孝眞’임을 알 수 있다.⁵⁷⁾ 이들은 모두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1243-1245년, 효진은 1244-1248년까지 판각 활동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본서 역시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한 판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제종과의 불서 및 시문집을 판각한 각수들은 모두 도감의 각수로 판각에 참여하고 있고, 단권으로 분량이 작은 불서 이외에는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어 판각된 것으로 미루어, 대장 및 분사도감의 조직 및 인원을 동원하여 판

54) 최영호, 2008 앞의 책, 65-66면에서 1237-1246년이나 1243-1244년경에 대장 또는 분사에서 조판되었고, 도감관 내지 준도감관으로 본다.

55) 박용진, 2021a 앞의 논문.

56) 남권희, 2021c 『만덕산 백련사 관련 문헌의 서지적 검토』 『〈백련사의 전승문화와 사상〉 발표자료집』, 백련사, 75-86면.

57) 전진이, 2016 『白賁華의 『南陽先生詩集』 研究』,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42-47면.

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13세기 간행 불서 및 해인사장판 가운데 일부는 분사도감에서 간행 또는 판각하였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13세기 간행으로 추정되는 『大乘起信論義記』, 해인사장판의 『佛說普門經』 등 다수의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최이 및 정안 발원 판각 전적과 분사대장도감

1) 최이 발원 판각 전적과 분사도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대장경 사업을 주관한 최이가 발원하여 간행한 불서와 분사도감의 상관성에 대해 검토한다. 최이의 식읍인 진주에 분사도감이 두어지면서 대장경 이외 교종과 선종 및 기타 불서 등이 다수 간행되었다. 최이가 찬술한 지어가 있는 불서나 기타 최이와 관련된 불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최이의 간행 및 축수 발원 전적

연번	서명	저/역	간행 년도	간기 및 발문	비고
1	金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	1237	丁酉(1237)十二月日謹誌	大字
2	南明泉和尚頌證道歌	玄覺法泉	1239	己亥九月 中書令 晉陽公 崔怡 謹誌	
3	妙法蓮華經解	戒環	1240	최이 발문	보현도량
4	禪門拈頌集	慧謙	1243	최이 축수, 만종시재, 정안지어	만종 간행
5	禪門三家拈頌集	龜庵	1246	재조장 각수 正安, 有立	囑崔怡(天英跋)
6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瑞龍連	1248	최이 축수, 전광재	분사추정

최이가 간행하거나 혹은 최이의 축수 등과 관련하여 간행한 전적을 살펴보면, 앞장에서 검토한 보유판의 『신문엽송집』, 『금강삼매경론』,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사실』은 분사도감의 간기는 없지만 분사도감 판각으로 추정되고, 또한 『선문삼가염송집』 역시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이하에서는,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연번 1〉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1237년(고종 24) 12월에 최이가 발원하여 개판한 것으로, 大字로 새겨졌으며, 6板(32張)이 전존한다. 권말 지어에는 '守大傳門下侍中上柱國上將軍判御史臺事晉陽侯崔瑀 特發弘願 金剛般若經 彫板流通 所冀隣兵不起 國祚中興 延及法界有情 俱霑勝利 破諸有相 共識眞空 時丁酉(1237)十二月日謹誌'라 하여, 최이가 『금강경』을 조판 유통하여, 隣兵不起와 국조중흥을 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수는 釋光, 大吽, 處#, 明悟, 立, 正一, 夫仁, 冲敝 등이 확인되고, 이 가운데 孝如, 釋光, 大吽, 冲敝는 대장경의 판각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孝如와 釋光은 대장도감에서 대장경의 『대반야바라밀다경』 등과 분서 대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1237년(고종 24)에 판각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私家版' 또는 '사찰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⁵⁸⁾ 이는 대장도감의 조직 체계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⁹⁾ 1237년은 강화도로 천도한지 5년이 되는 해로, 고려대장경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다. 본서는 국가의 외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목적으로 한 발원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분사도감판은 아니지만, 전쟁의 종식을 통한 국운의 재흥을 발원한 것으로, 최이의 명에 의해 분사도감으로 전개된 대장도감의 조직 및 인력을 통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최이의 발원 불서가 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하여 간행한 선례가 되며, 최이나 정안의 발원과 관련된 경전과 불서의 간행 역시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3〉 『묘법연화경해』는 송대 계환의 『법화경』 주해서로 7권이다. 천태종의 비구 四一이 송본을 얻어 보현도량에서 연양하여 널리 전하러 한다는 것을 들은 무인 집정 진양공 최이는 조판을 명하였다.⁶⁰⁾ 발문은 최이가 1240년에 찬

58) 최이 및 정안의 지어가 있는 불서는 私家板으로 본다(천혜봉, 2001 『한국전적인쇄사』, 汎友社, 190면;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38-46면). 천혜봉은 '사가판'에 대해 개인이 자비로 간인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퍼내는 책이라 하였다.

59) 최연주, 2015 『고려시대 金剛般若波羅密經 彫成 현황과 書誌의 성격』 『석당논총』 61, 100-104면.

술한 것으로, 백련사 요세의 보현도량이 1232년에 기시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집정자인 최이가 조판을 명했다면, 이는 대장도감의 자원을 활용하여 간행토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뒤에 분사도감의 조성처로 기능하는 지역과 관련된 곳에서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이를 이은 최항을 축원한 불서 가운데 분사도감의 판각처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서로는, 崔沆의 ‘福壽無疆’을 기원하기 위해 1251년(고종 38)에 朴隋가 開板한 『佛說阿彌陀經』과 고종 43년(1256)에 월남사 無用이 緣起寺의 心益과 함께 발원하여 간행 보급한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疏』(이하, 『보현행원품별행소』)가 전해지고 있다. 박수가 개판한 『불설아미타경』은 분사도감의 지역별 판각처 가운데 동경 즉 경주에서, 분사도감의 조직을 활용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⁶¹⁾ 『보현행원품별행소』는 40권본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인 『보현행원품』에 해당하며, 당대 澄觀이 찬술한 1권 1책의 화엄 장소이다. 본서는 월남사 無用이 緣起寺의 心益과 함께 발원하여 1256년(고종 43)에 간행한 것으로 국왕 및 청하상국 최항을 축수하고,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였다.⁶²⁾ 위의 『불설아미타경』과 『보현행원품소』는 각각 동경인 경주와 전라도 월남사에서 간행되었는데,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한 판각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방광불화엄경세주묘엄품』은 불분권 1책 15장이며, 청하상국의 수북,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여, 山人 志閑이 정서하고, 順安山城 防護別監 李榮이 각수를 모집하여 개판하였다.⁶³⁾ 순안인 영주 인근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

60) 『妙法蓮華經』 권7, “蓮經大義 會三歸一合於東土 統三之應 其在歸崇之意 孰能如此 今者苾芻四一 幸得宋本 戒環解義 其文旨簡宏 宜當演揚於普賢道場 以廣其傳 予聞而悅之 遂令雕板 以報環師 清淨慧眼之遠矚焉 時上章困敦群月 下旬謹誌 金紫光祿大夫守大師中書令上柱國上將軍監修國史判御史臺事晉陽公 崔怡.”(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2021.10.5. 검색)

61) 최영호, 2016a 『13세기 중엽 개령분사대장도감의 활동인력과 조성경관』 『국학연구』 30, 399-400면.

62)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2021. 10.5. 검색)

63)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伏爲 聖祚天長 清河相國 壽祿延弘 干戈不作 禾穀有稔 普與法界生亡 共樂岸 請山人 志閑 敬寫華嚴神衆 募工雕板者 十二月日誌 順安山城防護別監 同縣令興威衛攝散員李榮.”(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며, 도감의 관련성은 미상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해인사장관 『大方廣佛華嚴經疏』가 1241년 가야산 하거사에서 조조되었는데, 각수는 光林, 三旆, 王柱, 智一, 弘正, 道宣, 石光, 意見, 惠耳의 9명이며, 이들은 당시 대장도감의 대장경 판각활동에 종사하였다. 기타 함께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大方廣佛華嚴經如來出現品』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장 및 분사도감의 조직,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⁴⁾ 향후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과의 관련성은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정안 발원 판각 전적과 분사도감

정안은 최이와 함께 대장경의 조성 사업에 사재를 희사하였고, 진주 및 하동, 남해를 근거로 활동하며 다수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대장 및 분사도감의 운영 시기를 전후한 정안의 불서 간행에 대해, 대장 및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표 9〉 정안 발원 및 판각 전적

연번	서명	지/역	간행년도	간기 및 발문	비고
1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1236	丙申年十二月十五日優婆塞鄭奮誌	
2	金剛三昧經論	元曉	1244	甲辰八月初五日 優婆塞鄭晏誌	보유관
3	金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	1245	乙巳正月望日優婆塞鄭晏誌	
4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	般若	1245	乙巳正月望日優婆塞鄭晏誌	
5	阿彌陀經	鳩摩羅什	1245	乙巳正月望日優婆塞鄭晏誌	
6	佛說豫修十王生七經	藏川	1246	丙午三月日優婆塞鄭晏誌	

정안의 발원 및 간행 불서는 『금강삼매경론』을 제외하면 경전류가 중심이다. 〈연번 1〉 『묘법연화경』은 鳩摩羅什譯 7권본으로 경판의 수량은 71판이며, 권7의

검색일: 2021.10.5.)

64) 최영호, 2008 앞의 책, 69-71면.

말미에는 정분의 지어가 있다.⁶⁵⁾ 정안은 산인 明覺을 청하여 鋟板 印施하였는데, 그 말미에는 국왕과 세자의 장수, 적병의 와해, 진양후의 국가 柱石, 불법의 진흥, 정안의 선고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다. 본서는 산인 명각의 판각에 해당하는데, 그와 동명의 인물이 1237년부터 1243년까지 대장도감에서 『방광반야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경전을 판각하였다.⁶⁶⁾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정안 및 명각은 대장도감의 판각처로 추정되는 진주, 하동, 남해 등 동일한 지역 및 인적 기반 위에 『법화경』을 간행한 셈이다. 이러한 정안의 불서 간행은 뒤에 대장경 조성 체제가 확대되는 시기에 분사도감으로 전개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2〉 『금강삼매경론』은 정안의 지어에 의거, 1244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의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성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최이와 정안의 분사도감 관련 등을 고려하면 정안의 지역 기반인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연번 3〉 『금강반야바라밀경』은 6板 10張이며, 1245년(고종 32) 정안의 지문에 의거, 이 무렵 간행되었을 것이다. 卷末題가 끝난 뒤에 般若眞言, 金剛心眞言을 쓰고, “伏爲四恩三有 法界舍生 乘此慧船 不處胞胎 常遊十方諸佛國土 鑊木印施云 乙巳三月日 優婆塞 鄭晏誌.”의 기록이 있다. 경판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지만 판독 불가이다. 국가적 발원은 아니지만 정안의 지역 기반인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연번 4〉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하, 『보현행원품』)은 6판 12장으로 해인사에 경판이 소장되어 있다. 말미의 지어에는 ‘乙巳正月望日優婆塞鄭晏誌’라 하여, 고종 32년(1245) 정안이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판의 각수는 정안의 지어 마지막에 ‘法蘭’이 새겨져 있다. 또한, 제11장 다음 면에는 사주쌍변의 ‘金剛行願彌陀合部’라는 題箋이 판각되어 있다. 앞의 『금강경』과 함께 경판의 판형, 판식 등에서 유사하여 합간의 가능성이 있다.⁶⁷⁾ 후대의 판각이

65) 『妙法蓮華經』, “於是請山人明覺 鋟板印施 無窮少報 慈恩之萬一用 祝我聖筭巨天 儲齡後地 隣兵瓦解 朝野鏡清 次願晉陽侯 長爲家國柱石 永作佛法藩牆 更願我先考 及亡姊兄弟 與六親眷屬 泪三途受輪迴者 同承此因 共生極樂世界 丙申年十二月十五日 優婆塞 鄭奮誌.”

66) 최영호, 2008 앞의 책, 153-154면에서 명각의 판각 활동을 분석하였다.

아닌 당시의 판각이라면 『아미타경』을 포함하여 『삼경합부』로 합간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⁸⁾ 〈연번 5〉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9권 16장이며, ‘丙午三月日 優婆塞鄭晏誌’에 의거, 1246년 정안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판의 제10, 12, 14장에는 ‘三捺’ 이외 판독 미상의 각수가 확인된다.

위의 『금강삼매경론』과 『보현행원품』 및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의 각수 가운데 得心·文益·天孝·法蘭·三捺 등 20여 명은 1243년(고종 30) 단속사 주지 만종이 해장분사에서 조성한 『선문염송집』의 각수와 일치한다.⁶⁹⁾ 또한, 『보현행원품』의 각수 범란은 1237-1244년,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의 각수 三捺는 1238-1247년에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이들 3종의 경판은 만종의 시재로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선문염송집』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⁷⁰⁾ 결국, 정안이 간행한 5종의 불서는 고려대장경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해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⁷¹⁾

이렇듯 최이, 만종과 정안의 친연성, 불교 교류 등을 종합하면, 최이와 정안의 불서 간행은 대장도감이 운영되던 시기부터 이미 도감의 조직과 운영에 기반한 불서의 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성처가 도감의 조직과 인력에 의하였지만, 일부의 불서에 대해서는 조성 주체와 판각처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67) 최영호, 2016b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 『석당논총』 65, 84·86면.

68)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고려본의 『금강경』과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합철본을 소개하였다.

69) 최영호, 2016b 앞의 논문, 92-93면; 최연주, 2018 앞의 논문에서 각수명을 뽑아 비교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각수 분석은 생략한다. 77-78면에서는 5종의 불서의 서지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70) 최영호, 2016b 위의 논문; 최연주, 2018 위의 논문; 정병삼, 2009 「고려 후기 鄭晏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 24; 김광식, 1993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건대사학』 8.

71) 최연주, 2018 위의 논문, 115면에서 진주나 남해의 분사도감 또는 제3의 분사도감의 조직을 활용하면서 도감 산하의 조성처에서 간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병삼, 2009 위의 논문, 403-436면에서 『묘법연화경』 등 4종은 사간판, 『금강삼매경론』과 『선문염송』은 국간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重編曹洞五位』는 일연이 1256년 운산의 길상암에 寄錫하면서 편찬하였고, 1260년 서문에 의거, 이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고려대장경의 조성은 완료되었지만 도감의 조조 시설을 활용한 보유판 판각은 계속되어 남해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⁷²⁾ 1251년에는 정안이 죽임을 당하면서 가산이 적몰되었는데, 이때 남해의 판각 기반은 와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258년 최의가 김준, 유경에 의해 제거되어 최씨 정권이 몰락하였고, 경상도 및 전라도 일대의 경제적 기반이 해소되면서, 분사도감은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활동한 각수들은 대장경의 판각과는 무관하지만 다양한 간행 활동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도감의 인쇄 기반과 기술은 고려 후기 전적 간행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고려 후기 분사도감 및 분사도감 관련 간행 전적의 발굴이나 연구성과 위에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전적의 규모와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분사도감의 대장경 이외 판각 전적에 대해 분사도감의 간기가 있는 전적과 분사도감 간행 추정의 전적을 검토하였다. 분사도감은 1243년(고종 30)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장경의 판각량은 1248년까지 81종 640권 17,124장을 판각하였다. 분사도감의 대장경 이외 판각 전적에 대해 분사도감의 간기가 있는 전적과 분사도감 간행 추정의 전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사도감 판각 전적은 비입장판 『대승대교왕경』 10권을 비롯하여, 제종과의 불서 11종, 시문집 2종이 확인되며, 지어나 발문에 의해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2종이 있다. 또한 대장도감으로 기록되었지만, 분사도감 간행으로 추정되는 전적이 『향약구급방』, 『일승법계도원통기』 2종이 있다. 이상 18종이 현

72) 채상식, 2017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해안, 205면.

제까지 확인되는 분사도감 유간기 전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분사도감의 간기는 없지만,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의 운영을 통한 관각으로 추정되는 전적은 18종이다. 주제별로 구분하면, 화엄 교전, 선종서, 천태 교전, 유가 교전, 기타로 나뉜다. 소장처로 구분하면, 해인사 소장 경판이 다수인데, 이른바 보유판이 8종, 『금광명경』 경판의 1종이 추가된다. 첫째, 화엄 교전은 『십구장원통기』, 『지귀장원통초』, 『삼보장원통기』, 『교분기원통초』, 『법계도기총수록』이 1250년 이후 1251년까지 조성되었고, 대부분 대장 및 분사도감에서 활동한 각수들이 판각하였다. 『일승법계도원통기』는 중복되지만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이후 1287년에 대장도감에서 중간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둘째, 선종서는 1239년에 간행된 『남명송증도가』는 분사도감의 간행은 아니지만, 대장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서 간행되었고, 이는 이후 분사도감으로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문삼가염송집』은 1246년 천영의 서문에 의거,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천태종의 소의 장소로는 『법화문구병기절요』, 『원각류해』, 『홍찬법화전』 등이 있다. 천태 3서는 간행시기와 간행처는 불명이나, 각수명의 확인을 통해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력을 통한 간행으로 추정된다. 넷째, 유가종의 소의경전인 『금광명경』과 『합부금광명경』이 있고, 본서 역시 간행시기와 간행처는 분명치 않지만 각수의 분석을 통해 분사도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특정 종파성을 갖지 않는 불서로 『금강삼매경론』, 『자비도량참법』, 『대장일람집』의 3종은 해인사에 목판이 전존하고, 각수의 분석을 통해 분사도감과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남양선생시집』은 유가 문집이지만, 분사도감에서 판각한 『동국이상국집』의 사례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분사도감에서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제종파의 불서 및 시문집을 판각한 각수들은 모두 도감의 각수로 판각에 참여하고 있고, 단권으로 분량이 작은 불서 이외에는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어 판각된 것으로 미루어, 대장 및 분사도감의 조직 및 인원을 동원하여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장에서는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과 관련된 최이와 정안이 발원하여 간행한 불서를 통하여 분사도감 판각과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최이의 식읍인 진주에

분사도감이 두어지면서 대장경 이외 교종과 선종 및 기타 불서 등이 다수 간행되었다. 최이가 찬술한 지어가 있거나 관련된 불서는 6종이 확인되는데, 1243년 이후 간행 불서로는 『선문염송집』, 『선문삼가염송집』, 『남명송증도가사실』 등 3종으로 모두 선서에 해당하며, 대장 및 분사도감의 조직,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정안 발원 판각 전적으로, 정안은 최이와 함께 대장경의 조성 사업에 사재를 희사하였고, 진주 및 하동, 남해를 근거로 활동하며 다수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1243년 이후 정안과 관련된 판각 전적은 4종으로 『금강삼매경론』, 『금강경』, 『보현행원품』, 『아미타경』,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등이다. 정안이 간행한 5종의 불서는 고려대장경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분사도감의 조직과 인원을 통해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고려후기 분사도감의 판각 전적에 대해 그 규모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대장경의 조성 사업은 물론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의 운영과 추이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분사도감 판각 전적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판각주체, 판각시기, 판각장소, 판각내용 등을 정리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밝힐 과제가 남아있다. 별고를 기약한다.

주제어 :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 대장도감(大藏都監), 최이(崔怡), 정안(鄭晏), 불교 전적(佛敎典籍),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투고일(2022. 1. 15), 심사시작일(2022. 2. 9), 심사완료일(2022. 2. 25)

〈Abstract〉

The Scale and Contents of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the Bunsa-daejangdogam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Park, Yong-Jin*

This study reviews the scale and contents of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the Bunsa-dogam. From 1243 to 1248, Bunsa-dogam published 81 kinds of scriptures, 640 volumes. There are 11 Buddhist scriptures and two Collections of Works(詩文集), including *Dacheng Yuja Manshushili Qianbeiqianbo Dajiaowang Jing Sutra*(大乘瑜伽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published in addition to the Tripitaka Koreana. There are two books that are believed to have been published by Bunsa-dogam. In addition, although it was recorded as the publication of the Daejang-dogam, there are two books presumed to be published by the Bunsa-dogam: *Hyang'yak Gugeub-bang*(鄉藥救急方) and *Ilseungbupkeodo-wontonggi*(一乘法界圖圓通記). The above 18 kinds are Buddhist scriptures with publication records of the Bunsa-dogam that have been identified so far.

There are no publication records of the Bunsa-dogam, but there are 18 Buddhist scriptures that are presumed to be published through the Bunsa-dogam's organization and manpower. The subject of the publication Buddhist scriptures are divided into Hwaecomjong, Seonjong, Cheontaejong, Beopsangjong, and Buddhist scriptures that do not have a specific sect.

Choi-Yi (崔怡) and Jeong-An (鄭晏) were practically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Bunsa-dogam, and the publication of the Bunsa-dogam and its relatedness were reviewed through the Buddhist scriptures they published. There are six Buddhist scriptures related to Choi-Yi's publication, and it is presumed that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after 1243 utilize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Bunsa-dogam.

Jeong-An donated private materials to the publication project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published a number of Buddhist scriptures while working on the basis of Jinju,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Hadong, and Namhae. It is presumed that the fiv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Jeong-An were published through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Bunsadogam while the publication of the Tripitaka Koreana was in progress.

Key Words : Bunsadajangdogam, Dajang-dogam, Choi-Yi, Jeong-An, Buddhist scriptures, the Tripitaka Koreana